



설렘 가득 **어린이날**, 문화에 문화가 더해지다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문화기관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공연, 전통놀이, 체험 행사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문화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ACC재단 어린이가족축제 하우편 국립광주박물관, 공연·만들기체험 나주박물관에서 '도토리 캐리커처' '푸르른 오월...' 도립국악단 공연도



남도소리유평터에서 5월 3일 특집공연 '푸르른 오월, 꿈을 달다'가 펼쳐진다.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ACC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 다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 ACC재단)은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2025 ACC 어린이가족문화축제 하우편(5월 3~5일)'을 진행한다. 올해 주제는 '달콤 축하 상상 대작전!'으로, 함께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다.

전시, 체험, 공연 등 50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고, 보고, 함께 즐기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려졌다.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 등에서는 예술가와 함께하는 체험형 전시가 열린다. '나의 작은 기념일'을 테마로 생일이나 입학식처럼 특별한 날을 떠올리며, 그 순간을 그림이나 작품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공현진 작가의 '묵신상화: 자투리 축제'에서는 나무 조각을 이용해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노현지 작가의 '그날의 맛'에서는 기념하고 싶

은 날의 기분을 색깔과 맛으로 나타내보며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볼 수 있다.

어린이들의 꿈과 소망을 예술로 표현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노인우 작가의 '공간 13-3-3'에서는 각자 상상하는 꿈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도파민최 작가의 '도파민의 작업실'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하고 싶은 소망 메시지를 모아 작가의 그림과 교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하우편의 즐거움을 더해줄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ACC가 창·제작 어린이 공연 '아홉을 깨물었을 때'를 비롯해, 광주 지역 단체들과 함께하는 '꿈의 무용단 광산', '상무대 근무지원단 군악대' 공연이 가족 관객들을 맞이한다. 이밖에 어린이문화원 공간을 활용해 인형극, 서커스, 종이비행기 국가대표의 특별 공연 등이 펼쳐져 아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어린이 문화원을 즐거운 축하의 공간

으로 구성했다"며 "가족 모두가 소중한 기념일을 함께 나누고, 밝은 내일을 상상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립광주박물관 '신나는 박물관 여행'

국립박물관은 '103회 어린이날 신나는 박물관 여행'을 마련했다. 오는 5일 전시관과 교육관에서 일반 관람객을 비롯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공연, 어린이날 미션, 만들기 체험을 펼친다.

전시관 부스에서는 미션지를 수령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기념품을 주는 '어린이날 미션'이, 체험학습실에서는 '달항라리 마카롱 만들기'(400개)가 진행된다.

어린이날 특별공연도 선사된다. 대강당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극단파플의 '책 읽는 마법사'가 관객들을 찾아간다.

어린이박물관은 '찾아라! 박물관 속 청이, 달이, 쪽이'를 주제로 캐릭터 모양 도자기를 찾은 후 어린이박물관 아트북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흥선 관장은 "다가오는 어린이날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박물관 여행'을 통해 아이들의 꿈들이 푸른 하늘처럼 영어려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날 즐거운 체험마당
나주박물관도 박물관 일원에서 '어린이날 즐거운 체험마당'을 주제로 '도토리 캐리커처',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통 공간으로서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인 '도토리 캐리

커처'는 어린이들의 개성을 담아 추억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페이스 페인팅'은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선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물관 방문을 기념해 가족사진을 즉석에서 출력해 주는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풍선 아트를 제작해 나누어 행사도 마련됐다.

풍선을 활용한 문화유산 만들기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적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데 초점을 뒀다"며 "박물관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의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도립국악단, 푸르른 오월 흥겨운 오월
도립국악단은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 가락에 맞춰 흥겹게 댈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했다.

오는 5월 3일 무안 남도소리유평터 공연장에서 특집공연 '푸르른 오월, 꿈을 달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노래와 춤, 연주, 연희가 어우러진 '가무악회' 형식으로 꾸며진다.

공연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도립국악단 대표 캐릭터 '국악프렌즈'와 함께하는 네컷사진 포토 이벤트가 열리고, 어린이 관객을 위한 특별 제작 굿즈인 '국악프렌즈 썸머스티커'도 증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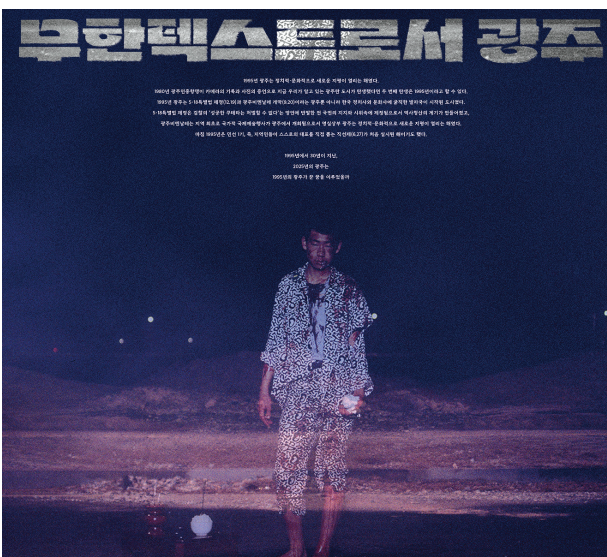
조용한 예술감독은 "국악 꿈나무들이 진정한 예술인으로 성장해가는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관객 여러분도 공연을 통해 꿈과 희망의 에너지를 받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5월 영화 인문주간- 무한 텍스트로서 광주'

광주영상인연대·전남대 호남학연구원
5월 10~17일 주제영화 상영·인문포럼



광주영상인연대는 전남대 호남학연구원과 함께 '5월 영화 인문주간-무한 텍스트로서 광주'를 진행한다. <광주영상인연대 제공>

1995년, 광주는 두 개의 굵직한 사건을 기록했다. 9월에는 광주비엔날레가 막을 올렸고, 12월에는 5·18특별법이 제정됐다.

한국 현대 정치·문화사에 분기점이 된 해를 돌아보며, 광주의 과거와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영상인연대는 전남대 호남학연구원과 함께 오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5월 영화 인문주간-무한 텍스트로서 광주'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비엔날레와 5·18특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포스트 5·18제'를 성찰하고, 광주라는 도시가 품은 역사적 중위를 재해석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AI와 인문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크게 '주제영화 상영'과 '영화 인문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주제영화 상영은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은 5·18 관련 작품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형도의 5·18 기행산문에서 영감을 받은 '쫓

은 여행의 기록-광주'가 그 중 하나다. 16mm 필름으로 촬영된 2000년 전후 광주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긴 이 작품은, 부산 출신 김백준 감독이 품어온 광주에 대한 내면의 부채를 영상에 투사한 결과물이다.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는 5·18 마지막 수배자 윤환봉의 미국 망명 시절을 치밀하게 복원한 작품이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고유의 존재로 분투했던 한 인간의 궤적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오는 5월 16일 오후 1시에는 '영화 인문포럼'이 열린다. 이 포럼은 이태호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의 기조강연 '1995년의 광주비엔날레와 5·18'으로 문을 연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인문학자와 영화인 10명이 참여해 광주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들은 5·18정신에서 파생된 사유를 매개로, 광주를 '무한 텍스트의 도시'로 읽어내는 시도를 펼칠 예정이다.

이상훈 광주영상인연대 이사장은 "광주는 과거의 기억에만 머물 수 없는 도시"라며 "영화와 인문학이라는 열린 언어를 통해, 미래 세대가 살아갈 광주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반려동물과 자연 '함께 살아가는 삶'

5월 25일까지 국윤미술관

반려동물은 인간과 교감하는 대상이다.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될 만큼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았다.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환기하는 전시를 연다. 오는 5월 25일까지 제2전시실. 'Live togeth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반려동물 외에도 꽃과 식물, 자연 등을 모티브로 펼쳐진다.

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 전시실에서 만나는 다양한 화풍의 작품들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만큼이나 그 분위기가 다채롭다. 무엇보다 'Live together'는 가족의 의미가 확장된 동질감, 유대감을 전제로 한다. 피로 나는 가족을 넘어 정서와 관계로 연계되는 확장된 개념의 가족임을 알 수 있다.

윤영월 관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현대인의 정서와 가치관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담긴 예술적 표현들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작가가 경험한 위로와 기쁨, 따뜻한 시선을 공유하고 정신적인 휴식과 예술적 사유의 시간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희 작가 '엄마 없는 동인에'

이번 전시에는 공모를 통해 1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김선희, 김지연, 김해성, 박미애, 박정근, 박정일, 서현호, 오선화, 윤서영, 이다예, 이두환, 이지수, 이진상, 조유나, 주성희, 최순민, 한미경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